

아동후기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박분희 · 김양수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아동후기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차이 지각과 세대차이에 따른 대처양식이 자녀와 부모간에 차이가 있는가? 또한 아들과 딸간에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양식이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목포시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학생 106명과 그들의 아버지 106명, 어머니 106명으로 총 318명이다. 자료처리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Tukey의 HSD 검증을 병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차이 지각에 대한 자녀와 부모집단간의 차는 생활 면과 종합적 세대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세대차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비해 세대차이를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대차이에 대한 대처방식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비해 적극적인 해결방법과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들과 딸의 세대차이 지각을 분석한 결과 학업적인 면과 여가·기호적인 면에서 아들이 딸보다 세대차이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 대처방식에서는 아들이 딸에 비해 회피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핵심어 : 아동후기 • 세대차 • 대처방식

세대차이는 대중매체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보편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는 학교, 직장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세대간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대차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세대간 갈등은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보다도 부모-자녀 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우리 세대의 도전중의 하나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시기로 넘어가는 아동후기의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이 및 대처양식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방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김현

정, 1995; 이경희, 1995; 이선숙, 1996; Atwater, 1996; Ebata & Moos, 1994; Parnela, 1988)은 그 대상을 청소년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Small & Eastman, 1991)는 가정에서 출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후기는 청소년기의 바로 직전 시기에 해당되며 오늘날 이 시기의 아동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기와 유사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연장은 아동후기 자녀와 부모와의 세대차를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있다.

그리고 아동기의 경험은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그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 내에서의 부모 자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0; Rutter, 1984).

따라서 아동기 자녀와 부모간에 경험하는 세대차의 내용과 정도를 밝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세대차 연구에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가족 내에서의 세대'로 정의하고 세대차이를 경험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아동후기 자녀와 부모가 세대차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내의 세대차이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차를 연구한 Montemayor(1982)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는 주로 학교성적, 친구문제, 귀가시간, 용돈사용, 형제와의 갈등, 청결, 정리정돈등에 관해서 세대차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자녀의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사회규범을 따르도록 가르치려는 부모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청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세대차를 연구한 Atwater(1996)에 의하면 발달단계상으로 볼 때 청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차가 가장 심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청년과 부모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있지만 서로 반대방향에 놓여있다. 청년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지만 부모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 양자 모두가 정체감 위기를 겪게 되고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주로 자녀의 이성문제, 학업을 포함한 진로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서 세대차를 겪게 된다.

국내의 연구로 김현정(1995)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세대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학업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세대차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면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십대자녀와 부모는 주로 자질구레한 일상의 문제로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는 학업 등의 문제로 그리고 청년기 자녀는 진로 등과 관련된 문제로 세대차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같다.

자녀와 부모의 세대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는 자신과 부모의 차이를 부모보다 크게 지각하며, 부모는 자신과 자녀의 차이를 자녀보다 적게 지각한다는 것이다(노영주, 1987). 이러한 지각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세대차이 지각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부모'와 '자녀'라는 다른 위치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수년간 하향투자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자녀의 상향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는 가족이라는 집단의 유지에 자녀보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가족 구성원의 조화와 균형에 더 많은 정성을 쏟는다. 이러한 차이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보다 세대차이를 더 적게 지각하도록 만든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 지각에 대한 일관된 결과는 Bengtson 과 Kuypers(1971)가 제시한 '발달적 내기 걸기'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자녀는 세대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며 그것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부모는 세대차이를 습관이나 성격등 사소한 것으로 보며 그것을 극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세대에 대한 한 세대의 투자'라는 발달적 내기 걸기의 개념을 도입했다.

'부모'와 '자녀'라는 입장의 차이가 그러한 지각현상을 가져온다는 해석은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달적 내기 걸기'의 개념은 발달단계에 따른 특정 가족주기의 두드러진 세대차이를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차이에 대한 대처방식

대처(coping)란 용어는 심리학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적응에 주는 영향을 다루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대처방식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실패하면 부적응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대차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청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Parnela(1988)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년기 자녀와 부모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세대차에 대처하는데 특히 어머니와는 감정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와는 금전, 스포츠에 관해서 대화하지만 대화의 개방성은 아버지가 더 낮았다.

Ebata와 Moos(199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할 때 접근전략과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능동적이고 세대차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접근전략이 회피전략보다 더 효율적이며 청소년기의 적응과 연관된다.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연구 중 청년기 자

녀와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김진숙, 1983; 오연옥, 1987; 이석경, 1987)에서는 자녀의 직업, 학교, 가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화 등을 통한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교육이나 성역할에 관해서는 아들보다는 딸과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윤진 과 최정훈(198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대처방식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직면지향대처(현재의 상황을 더 잘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와 정동지향대처(좌절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을 줄이거나 보상하려는 노력)가 더욱 많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타지향 대처(자신의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가 더욱 많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1995), 이선숙(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세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해결되기만 바라는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에 비해서 청년들은 세대차이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대화나 자기조절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의 대처방식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동기 때 자신이 경험한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했는가의 문제는 후기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기때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처방식을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본 연구에서는 첫

째, 자녀와 부모는 세대차이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녀와 부모는 세대차이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들과 딸은 세대차이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들과 딸은 세대차이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목포시내를 중심으로 인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녀 학생 106명(아들 53명, 딸 53명)과 아버지 106명, 어머니 106명이다.

측정 도구

1. 세대차이 측정 도구

‘자녀와 부모와의 세대차이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김의철(1999)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세대 갈등과 사회질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 중에서 본 연구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아버지용·어머니용·자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설문지의 하위영역은 ‘학업’, ‘생활’, ‘여가 및 기호’, ‘종합’ 네 영역이며 각각에 5개 문항이 포함되고 마지막 종합영역은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6문항이다.

이 척도는 5단계 리커트(Likert)척도 방식으로 문항의 반응범주는 ‘전혀 아니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보통이

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단계로 정하였다.

본 연구자에 의해 검증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되었는데 학업이 .67, 생활이 .66, 여가가 .64로 나타났다.

2. 세대차이 대처양식 측정 도구

'세대차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관한 설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청소년들의 갈등 대처양식 설문지를 아동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참고로 세대차이 대처양식을 자기조절, 회피, 적극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지원추구로 나누었다.

각각의 하위변인은 4개씩의 문항을 포함하므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자기조절이란 기분을 조절하고.....참으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거나, 노력, 반성, 계획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회피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상황을 피하거나 포기하며, 또는 술·담배에 의존하거나 자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적극적 처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해결을 뜻하며, 사회적 지원은 타인과의 대화와 설득 및 주위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척도도 5단계 리커트(Likert)척도로 채점방식은 세대차이 측정 설문지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뢰도 측정은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자기조절이 .67, 회피가 .65, 적극적 해결이 .76, 사회적 지원추구는 .72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9.0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였다. 자녀들과 부모들간의 세대차이와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에 관해서는 Tukey의 HSD 검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검증을 하였다.

결 과

1. 세대차이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지각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 차이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 차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 의하면 자녀와 그들의 부모와의 세대차이 지각을 살펴보면 생활영역에서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가 나타났는데 Turkey의 HSD 검증결과 아버지 집단(M = 2.23)이 자녀(M = 2.03)나 어머니(M = 2.10) 집단보다 세대차이를 의미 있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수준에서 세대차이 지각을 분석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Turkey의 HSD 검증결과 아버지(M = 2.85 SD = 1.06)나 어머니(M = 2.43, SD = 1.13)가 자녀(M = 1.93, SD = 1.18)들에 비해 세대차이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표 1. 세대차이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지각 분석

내용	집단평균(M) (표준편차(SD))		전체평균(M) (표준편차(SD))	F
학업	자녀	2.18 (.77)	2.47 (.77)	2.70
	아버지	2.62 (.77)		
	어머니	2.65 (.68)		
생활	자녀	2.03 (.72)	2.12 (.74)	4.97**
	아버지	2.23 (.82)		
	어머니	2.10 (.70)		
여가/기호	자녀	2.12 (.78)	2.29 (.72)	1.51
	아버지	2.43 (.72)		
	어머니	2.34 (.43)		
종합	자녀	1.93 (1.18)	2.43 (1.16)	4.43*
	아버지	2.85 (1.06)		
	어머니	2.43 (1.13)		

* $p < .05$, ** $p < .01$

2. 자녀와 부모의 세대차이 대처방식

표 2는 자녀와 부모간에 발생하는 세대차이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다.

표 2의 결과에 따르면 대처방식에 있어서 적극적 해결과,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문항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urkey의 HSD 검증결과 적극적인 해결양식 문항에서는 부모(아버지 $M = 3.56$

/ 어머니 $M = 3.50$) 집단이 자녀집단 ($M = 2.5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문항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Turkey의 HSD 검증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나 자녀에 비해서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녀와 부모의 세대차이 대처방식 분석

내용	집단평균(M) (표준편차(SD))		전체평균(M) (표준편차(SD))	F
자기 조절	자녀	3.07 (.85)	3.16 (.81)	0.33
	아버지	3.22 (.82)		
	어머니	3.21 (.74)		
회피	자녀	2.08 (.79)	2.14 (.76)	0.53
	아버지	2.13 (.74)		
	어머니	2.22 (.74)		
적극적해결	자녀	2.54 (.88)	3.20 (1.02)	8.09***
	아버지	3.56 (.94)		
	어머니	3.50 (.94)		
사회적지원 추구	자녀	2.22 (.95)	2.69 (.96)	4.28*
	아버지	2.74 (.87)		
	어머니	3.08 (.88)		

* $p < .05$, *** $p < .001$

3. 세대차이에 대한 아들과 딸의 지각

표 3은 아들과 딸이 부모와의 세대차이 지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세대차이에 대한 아들과 딸의 지각 분석

내용	아들 M(SD)	딸 M(SD)	t
학업	2.34 (.81)	1.99 (.66)	2.39*
생활	2.12 (.71)	1.94 (.68)	1.30
여가/기호	2.30 (.78)	1.91 (.74)	2.60*
종합	2.02 (1.13)	1.84 (1.22)	0.76

* $p < .05$

표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과 여가·기호적인 면에서는 아들과 딸간에 의미 있는 차이($p < .05$)를 보이고 생활이나 종합적인 지각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적인 면에서 아들($M = 2.34$)이 딸($M = 1.99$)에 비해 부모와의 세대차이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나 기호적인 면에서도 아들이 딸보다 더 세대차이를 유의하게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아들과 딸의 세대차이 대처방식

표 4는 부모와의 세대차이 대처방식에서 아들과 딸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아들과 딸의 세대차이 대처방식에 관한 분석

내용	아들 M(SD)	딸 M(SD)	t
자기조절	3.02 (.83)	3.09 (.88)	0.41
회피	2.28 (.84)	1.87 (.69)	2.79**
적극적 해결	2.59 (.86)	2.49 (.89)	0.55
사회적 지원추구	2.20 (.92)	2.28 (.98)	0.44

** $p < .01$

표 4에 나타나 있는 아들과 딸의 대처방식을 보면, 다른 대처방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회피에서만 집단간의 의미 있는 차이($p < .01$)를 보였다. 즉, 아들($M = 2.28$)이 딸($M = 1.87$)에 비해 회피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의 검증 결과 즉,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차이 지각을 분석해 본 결과 학업면에서 부모와 자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47로 생활이나 여가 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학업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교

육환경으로 설명되어질 수있다. 즉, 아동 후기가 되면 벌써 대입에 대한 준비기에 접어들게 되고 자녀들의 장래의 직업, 진로 등을 고려할 때 학업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모와 자녀 자신 모두에게 팽배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기의 특성상 자녀들은 부모들이 강조한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훈육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유의한 세대차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김현정(1995)의 세대 차 연구 중 청소년 자녀의 '불성실한 학업태도'에서 부모와의 세대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상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생활영역에서 아버지 집단이 자녀집단이나 어머니집단보다 세대차이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주로 어머니가 떠맡고 있는 가정문화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니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세대차를 좁혀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생활을 직장에서 보내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의 경우 심지어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는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Moen, 1991; Kelly, 1991).

둘째, <연구문제2>의 결과 즉 자녀와 부모간에 발생하는 세대차이에 대한 대처

방식 분석 결과 적극적 해결이나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문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인 해결방식은 부모가 자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원 추구 방식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나 자녀에 비해서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추구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1995), 이선숙(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해결되지만 바라는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다양한 적극적 갈등해결 전략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추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것은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 기술이 더 발달한 결과로 해석된다. Hatch & Bulcroft(1992)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구의 수도 많고 친구와 더 친밀한 우정을 나누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셋째, <연구문제3, 4> 즉,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방식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아들이 딸에 비해 세대차이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적인 면과 여가나 기호적인 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딸보다는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기대로 인해 아들은 세대차이를 높게 지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업과 관련하여 볼 때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를 한다. 즉 아들에게는 성취력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으며(Block, 1973) 딸보다는 아들이 야망이 있고 지적이며 독립적이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Hoffman, 1977).

세대차이로 인한 대처방식의 분석결과에서는 회피수단에서만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아들이 딸에 비해 회피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윤진 과 최정훈(198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대처방식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직면지향대처(현재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와 정동지향대처(좌절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손상을 줄이거나 보상하려는 노력)가 더욱 많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타지향대처(자신의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가 더욱 많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와는 발달상의 차이로 해석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에 대한 연구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까지 연결된 발달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 발달과정 변화를 거치며 세대차이의 지각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종단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세대차이 지각과 대처양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또한 설문에 의한 조사연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부모와 자녀의 일상생활을 관찰, 기록, 분석하고 직접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배경에 다른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즉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차이는 자녀가 독자인가? 맏이인가? 둘째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형태가 핵가족인가? 확대 가족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의철(1999). 자녀와 부모와의 세대차이 지각. 미간행 자료.
- 김의철·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1), 96-126.
-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5). 생활문제 지각에 나타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 차별적인 '사회적 표상'의 형성과 내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주(1987). 세대차이에 대한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지각 불일치.

-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오연옥(1987). 청년기 자녀와 부와의 대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최정훈(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 행동양식: 고교 및 대학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 (1), 16-35.
- 이경희(1995).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경(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숙(1996).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도와 스트레스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Ebata, A. T., & Moos, R, H.(1994). Personal, situation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cop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4, 99-125.
- Gutmann, D. L.(1964).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In B. L. Neugarten (Ed.),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erton.
- Hatch, L. R., & Bulcroft, C.(1992). Contact with Friends in Later Life: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222-232.
- Hoffman, L. W.(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8), 644-657.
- Kelly, R. M.(1991). The Gendered Economy : Work, Careers, and Success. Newbury Park, CA: Sage.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4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oen, P.(1991). Transitions in Mid-Life: Women's Work and Family on Roles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53(1), 135-150.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c in conflict :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os. R. H., & Billings, A. G. (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Parnela, W. J. (1988). Toward adolescent view of the family .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Rossi, A. S. (1980) Transition to Parenthood. pp. 384-399 in A.Skolnick and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Skolnick, A. (1978). The Intimate Environment.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Small, S., & Eastman, G.(1991). Rearing adolescents in contemporary society. *Family Relations*, 40, 455-462.

The perception differences of the generation gap and coping strategy with the generation confli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late childhood.

Bun- Hee Bak · Yang- Su Kim

Department of Education of Mokpo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erception differences of the generation ga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late childhood.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focused on. First,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the coping strategy between parents and theirs children? Second,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the coping strategy between sons and daughters? To examine these questions, three different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father, mother and children. The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two variables, which asked about the coping ways of the generation gap, the perception of the generation gap and the differences of the point of view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106 fifth grade students, who were attended elementary schools around Mokpo, and with their 106 fathers and 106 mother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a ANOVA and Tukey HSD. In addition,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s. First, parents and children perceived the largest generation gap in study. Second, in general, parents perceived the generation gap much more than children. Third, sons perceived the generation gap much more than daughters in study.

Key words : late childhood • generation gap • coping strategy